세뇌
〈Brainwashing〉

진 성 오 소장의
신비한 심리사전

한자로 '뇌를 씻는다'는 뜻의 세뇌(洗腦)는 인간의 정체성 자체를 변화시켜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즉, 물리적 폭력 혹은 정신적 압박 등의 강한 외압을 통해 특정주의 사상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전쟁 때 중국 공산당이 포로인 미군에게 공산주의를 믿도록 강요하였는데, 세뇌라고 부르던 것을 영어로 직역해 brainwashing이라고 명명했다.

한 개인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감금하여 비밀을 밝히게 하거나 정치적 성향이나 도덕적 확신을 설득하는 것이며 가치관이나 행동을 변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강력한 신체박탈 상태, 감금, 수면이나 음식의 박탈을 통해서 지적·정서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조건반사로 잘 알려진 파블로프의 연구에서도 세뇌의 기본적인 원리들이 밝혀져 구소련에서는 일종의 '통치 공학'으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개에게 종소리를 들려주고 사료를 주는 것을 강압적으로 반복하였더니 나중에 종소리만 들어도 개들이 침을 흘리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파블로프의 조건화이다.

그런데 파블로프가 추가로 발견한 사실은, 극심한 혼란 상태나 목숨의 위협을 경험하는 상태에서는 학습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조건화에서 보였던 반응과 반대되는 반응까지 보이는 현상도 발견하였다고 한다.

1924년에 레닌그라드에 큰 홍수가 있어 파블로프의 연구실에도 갑작스럽게 물이 들이닥쳤다. 그 때문에 값비싼 기자재나 실험용 개들을 챙길 새도 없이 급하게 사람만 빠져 나오게 되었다.

그 때 연구원 한 명이 물속에서 허우적대던 개들을 어렵게 건져내서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기묘한 일이 생겼다. 식사시간을 알리는 종을 쳐도 개들이 꿈쩍을 안했고 몸에 배어 있던 자극반응의 학습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이것을 물에 빠져죽을 뻔했던 충격 때문으로 추측한 파블로프는 동일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구성해서 실험했더니 역시 학습된 개들에게서 조건화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학습된 행동이 사라진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얌전하던 개가 난폭해지거나 난폭한 개가 얌전해지는 결과도 보게 되었다고 한다.

파블로프의 이러한 연구들은 멀리 미국에까지 전달되어 행동심리학을 촉발시키게 된다. 물론 학문적인 얼굴로 연구되었으나 사실 이러한 기술은 악의적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CIA의 '블루버드' 라는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1953년에는 'MK 울트라' 계획이라는 악명 높은 프로젝트까지 발전하게 되는데, 영화 '본시리즈'의 주인공 제이슨 본은 세뇌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진성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1년 전엔 탕후루, 지금은 '요아정'?

기자 수첩
신 원 선
〈유통&라이프부〉

/유토이미지

지난해 탕후루가 열풍이었다면, 올해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중에서도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라는 이름을 줄인 '요아정(YOAJUNG)'이라는 브랜드가 MZ세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요아정은 요거트 아이스크림 위에 과일과 씨리얼 등 다양한 토핑을 취향대로 올려 먹을 수 있는 디저트 가게다. 연예인과 셀럽들이 요아정을 주문해먹는 모습이 방송을 타면서 배달 주문량도 급증했다. 다양한 유튜브 패러디 영상, 배우들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언급, MZ세대 아이돌의 조합 추천 등이 홍보효과를 내고 있는 것.

하지만, 탕후루가 그랬고, 그 전에는 대왕카스테라, 벌집 아이스크림이 그랬듯 요아정 역시 반짝 인기를 끌지 않을까 우려된다.

요아정은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도 연일 화제다. 8~10월 세달간 240여개의 매장이 신규 오픈했을 정도로 가맹점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1년 전만 하더라도 탕후루 가맹점 문의가 빗발치더니 탕후루는 온데간데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요아정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탕후루 가게는 1200곳 넘게 문을 열었지만, 올해 들어 개업한 가게는 77곳에 불과하다. 반면 폐업한 가게는 지난해 72곳에서 올 들어 397곳으로 크게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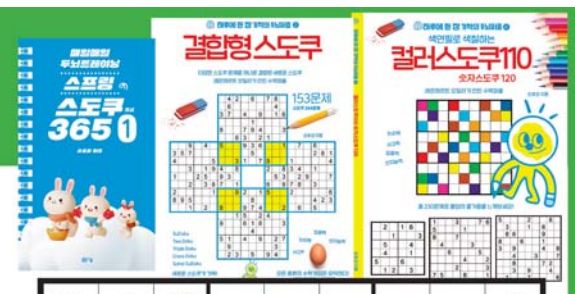
디저트 유행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2000년대 중후반에는 벌집 아이스크림과 대왕카스테라가 유행하더니 뒤이어 슈니발렌, 흑당 버블티도 잠깐 인기를 끌다 사그라들었다. 사실 요거트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원조는 20년 전 폭발적인 인기를 끈 '레드망고'다. 2004년 당시 레드망고의 유사 브랜드도 상당수 생겼었지만, 단일 아이템으로 롱런하기에는 무리였다.

예비 자영업자라면 현재의 인기에 기대어 가게를 열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롱런할 수 있을지 먼저 고려해야 한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요아정 가게가 1년 전에는 탕후루 가게였고, 보다 더 이전에는 벌집 아이스크림 가게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tree6834@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7			3
		5		4		6		
	3	9				4	2	
4			1		2			
	6						1	
			9		3			8
	7	2				1	5	
		4		1		2		
5			2					7

5	1	8						4
			6	3				1
					8			2
		1		5			7	
	5		7		3		8	
	6			9		2		
3			1					
9				4	2			
1						4	2	3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6	8	4	3	2	1	9	5
9	3	2	5	1	7	4	8	6
4	5	1	9	6	8	2	7	3
8	4	5	3	9	6	7	1	2
2	1	7	9	6	3	5	4	8
6	9	3	4	5	8	7	1	2
6	9	3	2	7	1	4	5	8
4	2	5	7	3	9	6	8	1
1	7	4	6	5	2	9	8	3

3	2	4	1	8	5	9	6	7
8	1	9	2	4	5	3	7	6
5	4	6	7	3	1	8	9	2
7	6	3	8	9	1	2	4	5
4	5	9	7	2	3	1	8	6
8	2	1	4	5	6	3	7	9
6	3	4	5	1	8	7	9	2
2	9	7	6	3	4	8	5	1
5	1	8	2	7	9	6	3	4

오늘의 운세

11월 12일 (음 10월 12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모래성을 쌓는 하루다. **48년생** 겉보기에 멀쩡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60년생** 상식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라. **72년생** 칭찬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고 했으나 공연한 칭찬은 불필요. **84년생** 신용이 없다면 밝은 미래는 없을 것.

소 **37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진다. **49년생** 모(矛)는 창의 뜻이고 순(盾)은 방패의 뜻이다. **61년생** 하늘은 맑고 공기도 좋으니 노력의 결실이 있다. **73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시비도 생긴다. **85년생** 할 일을 두고 잠이 안 온다.

호랑이 **38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고 원하던 것을 이루어 낸다. **50년생**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기보다는. **62년생**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상대에게는 부담된다. **74년생**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 즐겁게. **86년생** 강을 건너서 진행.

토끼 **39년생** 30대가 아니니 투자는 신중을 명심해야. **51년생**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만 준다. **63년생** 가정의 화목을 최우선으로 여겨라. **75년생** 하늘도 파랗고 재물도 생기니 여행을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87년생** 떠날 때 산만함을 유의.

용 **40년생** 일이 미뤄져도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52년생** 남의 의견에 좌우되지 말자. **64년생** 힘들어도 걸어오던 길을 계속 가야 할 것이다. **76년생** 부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심술만 늘어난다. **88년생** 이성으로 인해 발목 잡힐 일이 생길 수.

뱀 **41년생**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이는 법이다. **53년생** 이사도 좋겠으나 집 팔아서 누구 주려고 하는지가. **65년생** 갑자기 격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된다. **77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장을 제시해야 내일이 있다. **89년생** 실망은 기대만큼이나 크다.

말 **42년생** 흥에 겨워 도를 넘을 수 있다. **54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과 사랑이 따르는 하루. **66년생** 붉은색이 행운을 부르니 소품이라도 간직해보라. **78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오늘은 현상 유지를 하자. **90년생**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인간사.

양 **43년생** 어려운 일이 겹쳐도 두려워하지 말면 해결된다. **55년생** 적금으로 자산을 넓혀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를 한다. **67년생** 실력을 마음껏 발휘. **79년생** 갑자기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해야 하나 고민스럽다. **91년생** 혼자보다 둘이 좋다.

원숭이 **44년생** 그래도 걸어야 내일 뛰지 않는다. **56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잊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68년생** 직장에서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말아야. **80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양보하면 늘 유리하다. **92년생** 당연한 것이 상식.

닭 **45년생** 항상 태양은 뜨지만 느끼지 못하고 있다. **57년생** 근기가 약하며 부러지게 되니. **69년생** 누구든지 간에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 **81년생** 어떤 일이든 자신 있게 행해보자. **93년생** 미팅 시 매우 흥미로운 일이 발생할 것.

개 **46년생** 배움을 항상 소중히 하여 일궜다. **58년생**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성공의 사다리에 오를 수 없다. **70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음을. **82년생** 일이 즐겁다면 성공할 수 있음도 자가진단하게 된다. **94년생** 현재 자산을 소중히

돼지 **47년생** 사돈에게 인정받아 집안이 평온하다. **59년생** 사랑이 찾아오니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71년생** 남에게 해를 끼치면 두 배로 돌아오니 주의. **83년생**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경쟁자로 나를 곤경에 빠지게 한다. **95년생** 오늘만이 날이 아니다.

김상회의 四季
평생 일할 팔자

'평생 일할 팔자'라는 얘기는 복일까, 저주일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오래 일하는 것이 소부유근(小富由勤)의 원천이 될 수 있겠으나, 젊은 나이에 부를 이뤄 여유 있게 취미생활을 하고 인생을 만끽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들었다. 종종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글로벌 부자들의 성공담과 출세기를 듣자면 살짝 한숨과 탄식을 하게도 된다. 그래서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며 위안 아니 위안으로 삼아보기도 한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강은 기본이라 여겨지니 일단 차치하고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경제 문제가 1번인 것이다. 유달리 뜨거웠던 여름 기운이 빠지고 절기 상강(霜降)이 지나 슬슬 단풍놀이로 전국이 들썩이며 이렇게 가을의 정취를 만끽해도 부족할 판에 62년 임인생인 K여인은 수심이 깊다. 생활력도 없고 그저 태평한 성격의 남편을 쳐다보자니 단풍놀이는 마음 편하고 신간 편한 남들 얘기다. 지금껏 부지런히 기회가 닿는 대로 식당도 해보고 적은 돈은 모았다. 남편은 예나 지금이나 뚜렷한 직장도 없이 돈을 벌겠다는 의지도 없다. 나이도 나인지라 직장생활은 포기하겠지만 작은 가게라도 차려서 남편과 함께 해볼까 싶지만 자신이 없다. 남편은 4살 연상인 58년 무술생으로 정이 많고 우유부단한 사주이며 사주 식상이 약한데 일주 지지에 정재를 장간으로 깔고 있다. 처 덕을 깔고 있다. 무엇보다 K여인은 평생 몸을 움직였고 어려운 살림에 머리채를 끊어서라도 남편 막걸리를 사다 바치는 기운이다. 남편에게 그나마 인연이 있는 업종은 땅과 관련된 것으로서 과수원이나 작물 재배가 쉬운데, 도시에 살고 있으니 농작물 재배와는 연이 닿지 않고 장사를 하게 되면 돈만 날리는 경우이니 쉬는 것이 방책이다. '평생 일할 팔자'라는 얘기는 복일까?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4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5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